경찰포교회 민중지팡이 불심심기

구로·동대문서에 불자회 창립·법당 개설

교리 · 의식집전 교육도

◇경찰포교회는 98년 6월 조계종 포교사단 연수회에 참가한 11명의 포교사가 모여 결성됐다.

경찰포교회. 지난해 6월 결성돼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다소 생소한 모임이다. 그러나 불과 11명 회원이 팀웍을 이루고 있는 이 작은 포교팀이 경찰포교에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어 눈길을 끈다.

96년 조계종 포교원이 경승단 창설 10주년을 맞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경찰서 전국 2백51곳, 경승위촉 6백29명. 그러나 경승실이 있는 곳은 불과 70여곳. 활동하고 있는 경승들의 활동도 절반 가까이가 유명무실한 형편이고, 경찰불교회는 파악조차 안 될 만큼 경찰포교는 등한안시 돼 온 게 사실이다.

경찰포교회(회장 김진홍)는 이처럼 터부시 돼 온 경찰포교를 위해 결성한 지 반년도 안된 지난해 10월, 12월 구로경찰서와 동대문경찰서에 불교회를 창립하고, 구로경찰서 법당개설 및 불상·후불탱화 봉안, 동대문경찰서 법당을 확장하는 등 경찰포교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경찰포교회는 불교회를 결성하고 법당을 개설하는 일 외에도 경찰불자들에게 기초교리와 의식집전을 집중적으로 교육해, 지도법사가 없더라고 불교회 자체적으로 법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 36년간 일선 경찰에 몸담았다가 지난해 9월 정년퇴임한 김진홍 포교사를 비롯해 회원들이 경승과 달리 불자경찰들과 같은 생활인, 직장인의 입장이라는 잇점을 살려 경찰불자들과 경조사를 함께하는 등 끈끈한 정도 나누고 있다.

경찰포교회는 올 한해 동안 법당은 있는데 경승이 없거나 불교회가 없는 중부경찰서와 서대문경찰서, 성북경찰서 등 서울지역 경찰서 '법당 열기 운동'과 불교회 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경찰불교회 합동 수계법회도 계획하고 있다.

김진홍 회장은 "경찰포교회는 경승과 대등한 관계라기 보다 스님들을 도와 경찰불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모임으로 궁극적으로는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을 불국토 건설의 일꾼으로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운불련 공양게송 확산운동

수덕사서 총회… 박영조 회장 연임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회장 박영조)는 3월31일 수덕사에서 전국 21개 지역회 대의원 1백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열고 공양기도 게송 확산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또 이날 총회에서는 규약을 개정하고 수석부회장 류자순(대구지역회)씨를 비롯 부회장 전영식(청주지역회) 최병식(전주지역회) 이대병(안양지역회), 감사 김용문(광주지역회) 조홍인(부산지역회)씨 등 임원개편이 있었다. 회장 박영조씨는 연임됐다.

운불련은 총회에 이어 1일까지 수련대회를 갖고 도량청소, 발우공양, 청법, 발원문 낭독, 천장사 참배를 하며 회원간 친목을 다졌다.

박영조 회장은 "하루 3번 공양 때마다 공양기도 게송을 외는 등의 작고 쉬운 것부터 실천해 가는 '참불자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도필선 기자

외국인에 통역안내

불국사 구품연지 봉사단

불국사안내 자원봉사단 구품연지(회장 최문규, 九品蓮池)가 불국사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영어, 일어 안내 자원봉사를 실시한다. 활동시간은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구품연지는 또 불국사 문화재 연구를 통한 안내자료 개발과 불교상식 바로 알리기운동도 전개한다.

불국사 포교국 (0561)746-1472

우리 모임에선

금강경독송회 호국령 천도

금강경독송회(지도법사 김재웅)는 18일 경주 서천에서 호국영령 천도 대법회를 봉행한다.

금강경 독송회 포항사무국 김영희씨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 산화한 영령들을 위로하고 천도·해탈하도록 해 국가 장래가 밝아지길 기원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지난 98년도부터 매년 봉행되는 법회는 금강경 독송 및 정진, 김재웅 지도법사의 법문 등으로 진행된다.

마곡사·대전약사 산악회 창립

충남공주마곡사산악회(회장 윤석환)와 대전약사불자산악회(회장 박암이)는 4일 마곡사에서 전국불교산악인회 손현수 총재 등 5백여명의 불자산악인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창립법회를 가졌다.

상주법우회 정기법회

상주법우회(회장 김종하)는 18일 오후 7시 상주포교당에서 정기법회를 연다. 이날 법회에서는 기도정진에 이어 지난 10일 왕산 서성동에서 가진 왕산 비로자나불 공양법회 보고 및 24일 성지순례 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무엇이 참된 고행인가

지허스님의 선방일기 ⑭

〈지난 호에 이어〉

"타인을 무시한 자기 위주야말로 진실한 고행이 아닐까요?"

"개연적 판단을 떠나 단도직입적으로 결론하시지요. 개연성은 회색적인데 회색적인 것은 언제나 기회와 위선을 노릴 뿐이니까요."

"스님, 그럼 간단히 묻겠소. 스님은 지금 '일손(日損)'을 거듭하면서 고행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고행을 생각하기도 하고 느끼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철저하게 고행을 할까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오늘처럼 단식기도를 결심하고 매식(每食)을 생식으로 대할 때마다 고행을 절실히 체감하고 있습니다."

"스님, 스님의 고행은 벌써 고행이 아닙니다. 노자는 실제로 고행을 하지 않고 다만 노자의 지혜로 고행을 유추하고 그런 말을 했을 뿐이오. 그러니까 스님의 고행은 고행을 체득은 커녕 체감도 못한 노자의 도를 위해 던진 무의미한 희생에 불과합니다. 본래 고행이란 것은 고행을 생각한다거나 느낀다면 이미 고행은 아닐 것입니다. 고행이란 것을 전혀 잊고 무의식적으로 고행하게 되어야 참된 고행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육체를 오롯이 하고서 고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신외(身外)에 무물(無物)이며 아생연후(我生然後)에 만사재기중(萬事在其中)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얼핏 듣고 생각하면 극히 유물적이고 유아독존적인 것 같지만 자세히 음미해보면 존재의 보편타당성을 표현한 극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무한한 공간, 무량한 원소, 무진한 시간, 무궁한 활력(에너지)의 부단한 작용에 의해 생멸하는 무수한 존재중의 하나인 나를 의식했을때 비로소 나는 나를 찾아보게 됩니다. 나를 찾는 동안 나는 양생해야 하며 양생하기 위해선 수신(修身)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나를 찾았을 때는 이미 나는 없고 다만 적멸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엄동에 병약한 스님이 단식기도를 해야 하겠어요?"

"그런데 그 적멸이라는게 뭔가요? 우리를 이 산속에까지 유혹해 온 그 적멸이라는 것 말입니다."

"나는 적멸을 모릅니다. 그러나 적멸은 문자로써 표현할 수 없으며 적멸을 말하면 벌써 적멸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적멸을 말함은 마치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지면서 지껄였다는 우화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만 성성(惺惺)히 오득(悟得)해야 할 뿐입니다. 적멸이니 피안이니 하는 사치스러운 용어를 쓰는 것은 나의 노파심 때문입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처음부터 끝까지 어휘로써 빌어쓴 것 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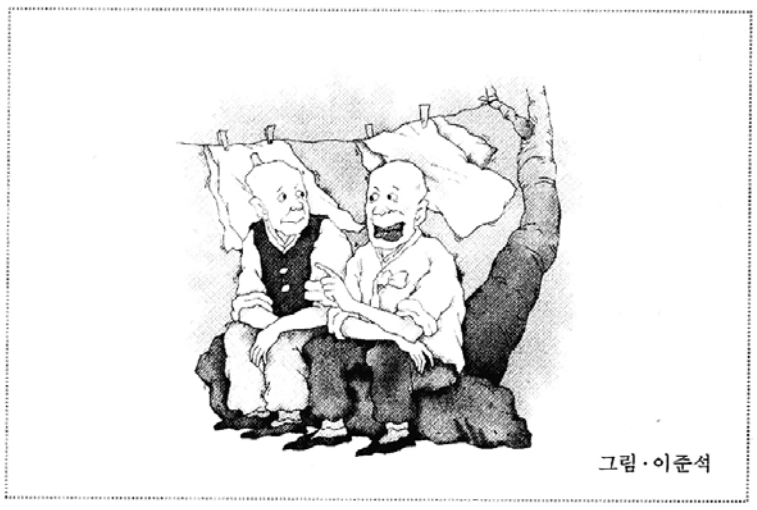
"그래도 저는 단식기도를 강행하렵니다. 저는 스님이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어쩔수 없지요."

정말로 어쩔수 없는 일이다. 나로서는 역부족이다. 도인이 아닌 바에야 누가 선객의 고집을 꺾을 수 있으랴. 돌아앉으면서 고소를 금치 못할 언어의 유희와 시간을 생식하는 스님과 내가 가졌다는 것은 나의 미망 때문이었을까.

그러나 생식하는 스님은 사흘을 넘기지 못하고 바랑을 걸머진 채 떠나고 말았다. 문자 그대로 작심삼일이었다. 뒷방 조실스님이 떠나는 스님의 등 뒤에 대고 하는 말이 걸작이다.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남아 있었구만."



그림·이준석

자기 존재의 문제 푸는데서 불교 출발

생식하던 스님 사흘 못 넘기고 떠나

■1월14일 해제 전날

뒷방에서는 바랑 꾸리기에 바쁘다. 내일이면 동안거가 끝나기 때문이다. 나도 바랑을 꾸려 놓았다.

봄이 밀려오는 탓인지 양광이 따사로운 오후다. 지객스님과 같이 빨래터에서 내의를 빨아 널고 양지 쪽에 앉았다.

내일 헤어진다고 생각하니 아쉬움이 앞선다. 앉을 때의 잠자리도 바로 이웃이었고 며칠 만큼씩 얘기도 나누었던 사이인 탓이다.

지객스님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를 완성시켜야 한다는데 선방에서의 햇수를 더할수록 알 수 없는 어떤 타의에 그리고 신비에 끌려가는 기분이 가끔 드는데 그게 정상일까요."

"어려운 질문이군요. 그러나 선객에게 가끔씩 찾아오는 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아함경〉을 통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한사람이 독이 묻은 화살을 맞아서 쓰러져 있다고 하자. 친구들은 의사를 부르려고 하였으나 그 사람은 먼저 화살은 누가 쏘았는지, 이 화살을 쏜 활은 어떤 모양인지, 그리고 독은 어떤 종류의 것인지 등을 알기 전에는 그 화살을 자기의 몸에서 빼내서 치료해서는 안된다고 하자.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는 그 사실들을 미처 알기 전에 죽고 말 것이다.'

형이상학적 문제만 붙잡고 공론에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 사람은 죽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은 유한한가, 무한한가, 또 신이 있는가, 없는가 라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지금 괴로와 하고 있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부처님 교설의 의취(意趣)입니다. 극히 실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란 자기의 존재에 있어서 자기의 존재가 문제가 되는 존재'라고 사르트르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타인에 대하여 필요 이상의 존재이며 타인도 나에 대하여 필요 이상의 존재'라고 그러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원죄란 타인이 있는 세계중에 내가 태어난 것'이라고. 비정하나마 인간실존의 참된 표현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존재를 문제 삼아야 하고 또 자기 자신이 그 문제를 풀이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출발점이며 실존주의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현대의 지식인들이 불교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는 실존주의가 배후세계의 망상(神學)을 거뜬히 파괴하기도 하고 타기했다면서도 신의 율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인간은 무책임하게 던져진 단독자라고 하기 때문이며(하기야 그들은 아무리 현명해도 중생이기 때문에 인간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파헤칠 순 있었지만 수습하고 구원할 수 없을 뿐입니다만), 또 하나의 보다 큰 이유는 근래의 기계문명이 인간을 평균화하고 집단의 한단위로 화함으로써 인간 실존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교는 백팔번뇌를 지적하면서 열반의 길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님, 인간은 끝내 인간의 범주내에서 인간의 조건과 같이할 뿐이지 초월하거나 탈피할 수는 없잖을까요." 〈계속〉

韓國佛教 觀音大聖宗 創宗 公告

任 員

宗 正 釋法山 큰스님
總務院長 正山 스님
布教院長 道元 스님
總務部長 慧峰 스님
布教部長 道泉 스님
財務部長 道明 스님
規正部長 法弘 스님
監察部長 性空 스님
奉仕部長 明觀 스님
教育部長 知圓 스님
鍊修部長 性道 스님
弘報部長 月潭 스님
動員部長 華潭 스님

副宗正 德源 스님
副院長 元明 스님
中央布教相談法師團長 金政昱 法師
副團長 李圭鶴 法師
中央信徒會長 추후발표
大學院長 추후발표
大 學 長 추후발표
自願奉仕團長 大慈行 法師
青年會長 李受泫 法師

※各市道郡 教區長 선임중
※布教師 法師任과 佛教信行人의 入宗을 대환영합니다.

佛紀 2543년 3月 28日 創宗
西紀 1999年 3月 28일

本山 江原道 방대산 觀音寺

⊙ 서울 종무소 : 서울 동작구 사당1동 1008-2호 觀音會
⊙ 전화 : 02)597-6211 H.P: 017-332-1633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전국 대리점 모집 02)757-1780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 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체험사

생리통 · 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생리때가 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영채 박사의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치료가 된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자신도 몰라 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해당되는 증상에 (O)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